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벽돌도 차거나와 인심도 어나보다/ 격장천리 소식이야 알 듯 말 듯 하다마는/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내 가슴이 아파라.”
이는 1970년대 재야 민주추진운동의 중심이자 인권변호사였던 이병민 선생이 남긴 ‘양심수’라는 제목의 시조다. 그는 때로는 호방하고 때로는 처연한 자신의 심사를 한 편의 시조로 읊은 당대의 풍류객이었다. 이 시조에는 답장 하나로 천리나 떨어진 감옥 안의 양심수를 걱정하는 인권변호사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있다.

권에 관한 동서양의 명구, 명언들을 변호사의 연명 하에 풀출광고로 만들어 심기 시작한 것이다. 몸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이름을 빌리고 광고비를 거두었다. 이 기발한 착상의 응원이 그 당시 민주회복운동, 그리고 언론자유투쟁에 엄청난 힘과 용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인권변호사 범하 이돈명 선생

1970년대와 80년대, 그 압축했던 정치적 탄압과 인권유린의 시절, 길을 내면서 인권변론을 열어나갔던 이병민 변호사가 인권 변론의 대부였다면, 살아 생전에 그의 바톤을 직접 이어받아 인권 변론의 한 흐름을 만들고 이끌어왔던 이돈명 변호사는 인권변호사의 마흔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불려왔다. 두 분이 다 같이 그 인권변론과 민주화 투쟁으로 인하여 옥고를 치렀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일면을 가지고 있다.

“인혁당 사건은 조작되었다”는 김지하의 옥중수기를 문제삼아 유신독재의 광기가 그의 생명을 위협했을 때, 이 변호사는 자청하여 그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당시 인혁당 조작사건은 유신정권에게는 아킬레스건으로, 권력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던 사건이었다. 이 변호사는 유신정권이 그렇게도 금기시하던 인혁당 조작사건을 변론을 통하여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는 독재권력의 눈에 가시 같은 힘들고 위험한 사건을 맡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같은 사건을 놓고 변론하더라도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언제나 ‘나 많은’ 자신이 많았다.

데미 사건, YH사건, 남민전 사건, 통일방직 원풍모방 사건,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부천시 성고문 사건 등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크고 작은 사건마다 그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고, 1980년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일을 맡고부터는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사건이 없었다.

1986년, 5·31인천 사태로 쫓기는 이부영을 당신이 숨겨준 것으로 해달라는 나의 부탁 한마디가 끝내 이돈명 변호사로 하여금 범인인척으로 구속되게 하는 발미가 되었다. 그러나 한번도 이부영이나 내게 고생한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 이 변호

사는 그 법정에서 ‘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에 쫓기는 한 마리 양을 보호했을 뿐, 결코 범인을 은닉하고 법을 위반했다는 가책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할 만큼 그때 그는 한 사람의 변호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범으로 그 누구보다 당당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그의 관심은 언제나 나라의 민주화와 인권문제였다. 조선대학교 민주 총장으로 잠깐 외도한 것 빼고는, 변호사의 길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가 인권변호사로서 마지막으로 변론에 나선 것은 송두율 사건 때였다. 80세를 넘긴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호인석에 섰고 변론요지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법원에 제출했다. 거기서 이 변호사는 세계적

인 학자요, 이름 석자를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송두율 교수가 “나는 결코 북한의 김철수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실이라고, 그 진실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적으로 나는 물론, 가깝게 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돈명 변호사는 한 사람의 법조인이기 이전에 축적된 삶의 지혜와 오랜 경험을 지닌 스승이었다. 그와 만나고 나면 듣고 배워 깨닫는 바가 많았다. 그의 탁월한 기지와 해학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백범을 따르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 발걸이나마 따라가고 싶다는 범하(凡下)라 자호(自號)한 이돈명 변호사는 나더러 백성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라고 우촌(友村)이라는 아호를 내리며 ‘우촌, 우촌’ 하고 가까이 불려주었다.

저녁을 들고 미처 한 시간이 되지 않아 침대에서 자는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죽음도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준다. 고종명(考終命)이란 지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삶이 좋으면 죽음도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의 죽음은 일깨워주고 있다.

그는 천상병이 그의 시 ‘귀천(歸天)’의 마지막 연에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하리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인연을 남겨놓고 편안하게 간 것이다. 그의 죽음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잘 살아야 한다”는 무언의 가르침이 되고 있다. <연문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역 MOU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안돼야

광주·전남지역의 지자체가 기업 등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중 본계약으로 연결된 경우가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MOU가 단체장의 지적 쌓기 홍보용이나 전시행정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주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역 내 MOU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합평군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 55건, 1조1127억여 원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이는 합평군의 군세(郡勢)를 감안할 때 대단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MOU 진행상황을 분석한 결과, 본계약 즉 실제 투자로 이어진 건 22건, 2179억 원에 불과했다. 건수로는 40%, 금액으로는 19.5%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기업의 사정이나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MOU는 무산될 수 있다. 특히 기업환경이 열악한 광주·전남은 더욱 그렇다. 그렇다 해도 20~30%에 불과한 실적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해 MOU를 남발해 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형편없는 실적이 합평군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광주시가 최근 약 3년간 국내외 업체와 MOU를 체결한 뒤 실제 투자로 실현시킨 금액은 30%에 불과했다. 전남도와 지역 기초 지자체의 MOU 실적도 광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광주·전남의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다. MOU가 기업유치와 고용창출로 연결될 때 지역이 활기를 띠고 주민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 따라서 MOU의 실제 투자율을 70~8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중국 원정 장기이식 폐해, 당국은 뭘 하나

장기나 줄기세포 등을 이식받기 위해 중국에서 수술하는 국내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불법 시술에 따라 현지에서 숨겨지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 지자체는 MOU가 무엇이 잘못돼 성과가 부진했는지 전략과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 또한 MOU 이후의 진전 상황에 대한 정기적 설명을 통해 ‘거품’을 빼야 할 것이다.

최근 광주지법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앞선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김모(여·62)씨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4년여에 걸쳐 환자 8명으로부터 모두 3억5200만 원을 받고 중국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주선했다는 것이다. 김씨의 앞선으로 신장을 이식 받은 광주지역 한 유명 의사는 후유증으로 끝내 숨졌다고 한다. 또 2009년에는 30대 회사원이 브로커의 소개로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다가 현지에서 숨지기도 했다.

장기를 구하려면 수술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불법 시술에 따라 현지에서 숨겨지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간 장기 이식 대기자는 1만7000여 명에 이르지만 시술이 이뤄지는 경우는 300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환자는 장기 이식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 원정 수술이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으나 수술 환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무엇보다 국내에서 이식 받을 장기가 없다는 데 있다. 국내에서

수년 전부터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을 계기로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금년 6월부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無等鼓

2011 아시안컵 축구대회에 출전한 한국팀은 25일 밤 ‘영원한 숙적’ 일본과 결승 티켓을 놓고 운명의 한 판을 벌인다. 지금까지 좋은 결과 때문이었지만 한국팀에 대한 평가는 칭찬 일색이다. 조광대 감독에 대한 본격적인 시험무대이며 대표팀 세대교체라는 의미를 지닌 이번 대회 중반까지 한국팀이 순항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조직력 덕분으로 풀이된다.

조별리그에서 4골을 넣어 최고 스타로 발돋움한 구자철(22·제주)과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선 지동원(20·전남), 이란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윤빛가람(21·경남 FC)이 새 ‘해결사’로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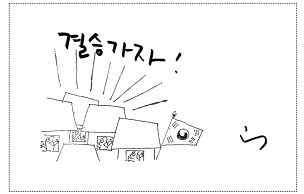
먼저, 관록의 이영표(34·알 힐탈)를 중심으로 차두리(30·셀틱)와 광대휘(30·교토스가), 이정수(31·알 사드) 등으로 구성된 수비진영이 제 몫을 다해주고 있다. 매 경기 끝 기회 포착을 위해 그라운드를 헤집

이번 아시안컵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대표팀의 플레이를 조직이론에 대입하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즉, 선수 특성을 원하게 꿰고 있는 조광대 감독(리더)은 이란전에서 윤빛가람을 교체 투입함으로써 응병술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후배들의 공격 루트를 뚫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월드컵스타 박지성과 이청용

(중간간부)의 팀 기여도는 단연 최고다. 감독의 현명한 리드와 선배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골문으로 돌진하는 구자철과 지동원, 윤빛가람(현장사원)이 있어 한국은 우승을 노리게 됐다. 25일 한·일전을 관전한다면 한국팀의 경기분석과 당신이 속한 조직운영을 비교해 보라.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이청용(23·볼턴), 기성용(22·셀틱) 등 미드필더들은 세계 최상위다. 승부는 한 방을 터뜨리는 ‘스트라이커’의 발에서 결정된다. 4강에 오르기까지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새 골잡이들의 발끝이다.



NGO 칼럼

김경일



새해를 맞아 좋은 이들과 함께 학박 눈 내린 금당산에 올랐다. 옥녀봉 산마루에 올라 쾌청한 하늘 아래 몸을 누인 도시를 바라보았다.

있는 것이 잘 보인다. 아마 그 그림을 이곳 산자락 어디쯤에서 그린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광주에 터를 잡은 옛사람들은 무등산을 용(龍)으로 여겼다. 옛 그림은 무등으로부터 이어져 끊어지지 않는 초록의 수려한 생태를 보여준다. 옛사람들은 생명력이 충만한 그 공간에 삶의 동지를 틀었던 것이다. 금당의 미끄러운 능선을 내려오며 자꾸 움츠러드는 가슴을 다시 편다. 그리고 이 도시의 어머니산 무등이 발하는 찬란한 모성을 생각한다. 세상 살아가 감각하고 메달라갈수록 자연의 무궁한 모성의 힘이 더욱더 필요하다. 펄펄 살아 숨 쉬는 어머니 자연의 생명력은 가없는 이 무심증을 이기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들이 어머니 자연을 지키고 가꾸어야 할 진짜 이유이다. <광주생명의 숲 사무처장>

기고

신광조



올 겨울은 유난히 북반구 곳곳이 이상한 화와 폭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영국에서는 100년 만에 최악의 혹한을 맞았고 미국 동부는 눈 폭탄으로 주요 도시들이 한 때 마비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간추위로 인해 겨울철 난방수요가 급증하면서 연일 최대 전력수요를 갈아치우는 등 매일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간접 에너지 절약 강화지침’을 시달하는 등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제유가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2009년 평균 배럴당 62달러에 불과하

‘패시브 하우스’를 보급하고 있다. 영국 또한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만들어 체계적인 친환경 건축물을 보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친환경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문에서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1%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2025년부터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환경모범도시를 선언한 광주시도 ‘2011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기

금당산에 오르다

정맥인양 흘러가게 하고, 귀한 자식처럼 양립산과 수박등 발산, 쫄보산, 여의산을 오롯이 그 품안에 그려안았다. 극락강과 영산강을 안고 어등산까지 넘쳐나는 장한 생명의 흔적이 절절하다.

서 이 소중한 산자락에 대한 대접이 달라져 버렸다. 인간의 편의에 의해 도시가 산을 헐어 냈다. 마치 장어를 토막지듯 스스로 제 살을 베어서 피를 흘리는 공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산자락이 북북 끊겨서 외딴 섬이 되어 버린 공간마저 이 도시의 욕망은 거만 두지 않으려 한다. 참 무섭다. 이 가없는 무심증이 사지를 움츠러들게 했다.

치렁치렁한 산자락들은 그렇게 마을로 스며들어 생명의 풍성함을 전해 주는 듯했다. 이 산자락들을 타고온 생명의 에너지가 다정하게 마을과 사람들에게 생애의 순환 고리를 잇대어 주며 다독여 주고 있었구나 싶었다.

금당의 미끄러운 능선을 내려오며 자꾸 움츠러드는 가슴을 다시 편다. 그리고 이 도시의 어머니산 무등이 발하는 찬란한 모성을 생각한다. 세상 살아가 감각하고 메달라갈수록 자연의 무궁한 모성의 힘이 더욱더 필요하다. 펄펄 살아 숨 쉬는 어머니 자연의 생명력은 가없는 이 무심증을 이기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들이 어머니 자연을 지키고 가꾸어야 할 진짜 이유이다. <광주생명의 숲 사무처장>

물병 사용 페트병 세균 많아 안전지침 마련해야

식당에서 사용하는 물병 용기의 대부분이 페트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페트병이 세균의 온상이라는 것을 모르는듯하다. 며칠 전 한 시민단체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페트병에 대한 실태를 발표한 적이 있다.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나왔다. 이처럼 페트병에 대장균이 번식하는 이유는 주둥이가 좁고 뚜껑에 많은 흠이 있기 때문에 개봉 이후 재사용하게 되면 세균 증식이 쉽다고 한다. 특히 여름철의 경우 하천의 물을 마시는 것과 같으니 놀랍기만 하다. 보건당국 차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재사용 여부, 안전지침 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 이상이 페트병을 물병으로 재사용하고 있는데 식당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페트병을 수거해 수질검사를 해보니 절반 이상의 페트병에서

▲유일숙·광주시 동구 수기동

녹색성장 여는 ‘에너지제로하우스’ 세계

던 국제유가가 올해는 1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고유가 파고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가야 한다. 이미 선진국들은 친환경 차세대 에너지 개발에 돌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에너지제로하우스’에 주목하고 있다.

간 동안(2011.10.11~18) 광주를 방문하는 세계 109개 도시 정상들과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우리시의 에너지제로하우스 기술역량과 녹색성장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에너지제로하우스’ 모형시설을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설치·전시할 계획이다.

에너지제로(플러스)하우스는 패시브와 액티브를 적용한 건축으로 외부에서 별도의 에너지 공급 없이 건물 내 필요 에너지의 자체 해결이 가능한 미래형 친환경 건축물을 말한다.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는 단열을 우선시하여 슈퍼단열, 열회수 환기장치 등으로 에너지 80% 정도를 절감하는 건축을 말하며, 액티브하우스(Active House)는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난방, 조리, 조명 등에 사용하는 건축을 말한다.

아울러 2012년도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실증 에너지제로하우스 ‘녹색성장 교육·체험관’을 우리 지역 기술력만으로 건립하여 우리시의 친환경 역량을 제고하고,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국제행사 개최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환경도시로서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에너지제로하우스’ 건축기술에서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 독일은 1980년대부터 친환경 주거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EU의 액션플랜 2020에 따라 유럽 전역에

세계는 지금 ‘에너지제로하우스’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 광주시의 저탄소 녹색기술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에너지제로하우스’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자명하다. 앞으로 이 분야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 광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advertising and subscriptions.